



일주문



호국영령위령제서 법문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6월 25일 호국금강사에서 열린 19회 호국영령 위령제에서 영가천도법문을 했다.



민추본 창립 2주년 기념식
정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6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포교사회 지도위원장에
선업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 회장은 6월 14일 국제포교사회 지도위원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산 경남 포교사단장
최덕수 포교사는 6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부산 경남 포교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풍경소리 이전 현판식 봉행
덕신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는 3일 견지동 길상원 2층 사무실에서 이전 현판식을 봉행한다.



신부전증 투병 김옥자씨에

생명나눔회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은 6월 17일 서울 사무실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김옥자 씨(25)의 사촌 언니 김영희 씨에게 수술비 5백11만7천원을 전달했다.

본지 제375호 4면 6·13 지방선거 불자당선자 821 기사 중 정중훈 시흥 시장을 '정중훈'으로 바로잡습니다.



“연합회” 빠른시일내 사단법인화

불교교육단체 김재일 공동대표

6월 20일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공동대표로 추대된 김재일 법사(동산불교대학 이사장·사진)는 “빠른

“연합회” 빠른시일내 사단법인화... “연합회” 빠른시일내 사단법인화... “연합회” 빠른시일내 사단법인화...

포교사 양성위해 ‘고시품수위’ 구성

시일 내에 연합회를 사단법인화 하겠다”며 “불교교육에 관심 있는 불교대학이나 불교단체라면 회원단체로 모두 수용할 발

포교사 양성 방안으로 연합회 내 ‘포교사고시품수위원회’를 구성, 회원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불교교육능력평가제(가칭)’

정률스님, 수녀회 종신서원식서 축하



성바오로딸 수녀회 종신서원식서 축하를 부른 정률스님.

정률스님은 지난 1999년 여성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 활동을 계기로 수녀들과 인연을 맺었으며, 그동안 서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서원식에서 정률스님은 부처님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담긴 천불가 향심을 독창하고,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들의 앞길을 축복했다.

성악가 정률스님이 6월 27일 서울 성바오로딸 수녀회 종신서원식에 초청돼 축하를 불렀다. 종신서원식은 불교의 비구(尼)계 수계식과 같은 의식으로 ‘이 몸 다 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약속하는 가톨릭의 의식이다.

이날 서원식에서 정률스님은 부처님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담긴 천불가 향심을 독창하고,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들의 앞길을 축복했다.

보광스님, 고아원 건립기금마련 서화展

금강경 사경작품 등 61점 전시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과 노인들을 위해 출가자의 삶을 회향할 생각입니다.”

서화가 보광스님(김제 태고종 금선사·사진)이 6월 23일~30일 전주 코아호텔 1층에서

를 통해 선발키로 하고, 교재 개발 및 번역 출판 등을 담당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발족한 ‘조계종 불교대학 대표자협의회’와 관련, 김 대표는 “연합회는 조계종 협의회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언제라도 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남겨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창립된 연합회의 회원 대학은 대전 보현불교대학, 불교통신대학, 해동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 등 22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진각종, 신행수기 당선자 시상식

진각종은 6월27일 총인원에서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신행수기체합 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믿음과 수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하는 것이 회당 대중사 탄생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수록천도제

부산 약천사주지 법인은 6월 25일 다대1동 수협공관장에서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수록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남파종 종정 혜음스님, 시하불교연 회장 지인스님을 비롯 3백여 명이 동참한 법회는 천도식과 법문으로 진행됐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윤광은)는 6월 22~23일 강남 봉은사에서 ‘제29차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가졌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 스님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불자런, 불교자원봉사단 발족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택)는 6월 26일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제15회 자원봉사시민대학 수료식’ 및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전문봉사 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 교육’이란 기치아래 교육받은 50명은 3개월간 자비수지침, 파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백혈병 재발... 치료비 없어 애태워

불자 간중대 씨 경전 읽으며 투병중



도약주세요

폐렴으로 백혈병이 재발한 40대 불자가장이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000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간중대 씨(41·사진)가 지난해 10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다른사람의 골수를 받아 이식수술을 했지만, 올 4월 거대 세포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다시 백혈병이 도져

투병 중에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 중인 간 씨는 무직 상태로 마땅한 수입원조차 없는 상태다. 아내 연 씨가 생활전선에 나가려고 해도 남편의 병간호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생활 자체가 막막하다. 2천여원이 넘는 치료비와 수술비는 1천5백만 원짜리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간 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주 신록사에서 신행활동을 열심히 해온 간 씨는 병상에서도 경전을 머리맡에 두고 아내를 위로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농협 계좌번호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6월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법화경 사경대법회에서 불자들이 사경에 몰두하고 있다.

법화경 사경대법회 봉행



제주 평화통일 불사리탐사(주지 도립)는 6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세계법화경 사경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정법종흥과 조국평화통일, 세계인류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법회에는 국내 서예계 원로작가와 초대작가 등 7천여 사부대

중이 참석했다. 이날 사경한 법화경은 8월 14~16일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탐사에 봉안된다. 또 이날 서예가 600여명이 쓴 한글서예 법화경 작품을 책자로 출간하고, 세계불자들이 사경한 법화경 108권과 함께 봉정식을 거행한다. 한글서예 법화경은 충북 천안시 소재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 조형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봉 미륵대불 금강도덕법립 성탄절 축

억 조창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이 중앙무기오십토운(中央戊己五十土運)으로 지구촌의 중앙인 한반도에 돌아오니, 세계 인류들이 몰려 와서 월드컵의 축제를 벌이고, 미륵부처님의 천지인 삼법이 이루어지는 이인홍삼십이월록(二人橫三十二月錄)이라, 인천(仁川)과 부천(富川)의 중간이 되는 송도(松島)에 용화세운(龍華世運)으로 진인께서 도덕진리로 만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니, 인천에서 36天的 천운으로 단군자손들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하였으니 이 신비하고 오묘한 신부지(神不知) 용화세상의 이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나 사는 것이 아니며, 구세주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는 종교를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미륵부처님 일월도덕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연이 없다면 기도를 한들 성취가 어려울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여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건만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운이 다한 말세종교의 말만 알아듣고 편하여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창조주 천지님께서 대자연의 절후 속에서 원형이정으로 만물을 생성하여 살리시듯이 후천 용

화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륵부처님께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배합하여 운행하는 금강도덕법립성탄절을 정명하고 건운곤복(乾運坤福)으로 만중생을 먹이고 입히어 살리시고 자 법고를 울리고 계시니, 오만대운의 새로운 성운으로 태양같이 떠오르는 구세주 미륵부처님 인연을 찾아, 칠대 조상부모님을 이고득락케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을 구하며 어두웠던 자손들의 앞길을 밝게 열어 곤난과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안 내 -

-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번지
● 전 화 : 032-832-0626 / 팩스 : 032-831-8967
● 주 최 : 미륵대도 금강연화중 총무원
● 후 원 : (재)대도문화재단, (사)미륵종교협의회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彌勒大道金剛蓮華宗